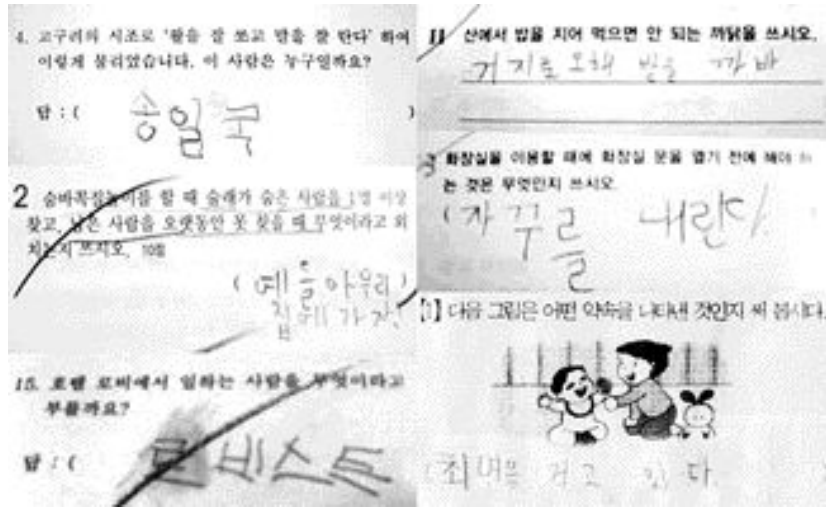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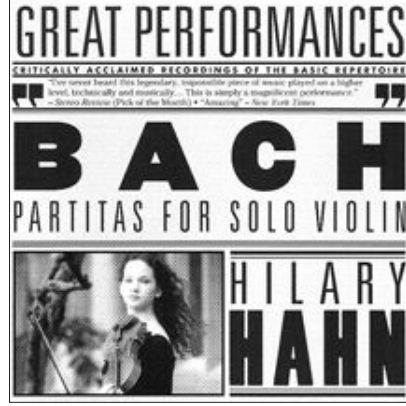
초등 2년 시험지 답안 동영상 "재치 만점"

정말 저렇게 답을 썼을까. 빨간펜으로 틀린 표시를 한 것이나 시험 문제들을 보면 '진짜'같은데 써놓은 답안을 보면 장난기가 넘친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시험지 답안을 찍어 올린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다. 네이버 비디오 사이트, 다음 TV팟 사이트에 이 동영상상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조카의 시험 문제지를 보다가 울었다"고 했다. '조작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지만 상당수는 '진짜 웃긴다, 재치 만점' 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시험지에 쓴 답은 대충 이렇다. 고구려 시조로 '할을 잘 쓰고 말을 잘 한다' 하여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누구일까요?'라고 물었다니 '송일국'. '술바꼭질할 때 술래가 숨은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찾고 남은 사람을 오랫동안 못 찾을 때 무엇이라고 외치는 지 쓰시오'라는 문제는 '애들아, 우리 집에 가져와' 적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문제에는 '지퍼를 내린다', '엄마야빠'로 사행시를 지으시오'라는 글짓기 문제는 '엄마는 마더, 아빠는 파더'로 적었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송을 내보내는 기관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하나요'라는 문제는 한 번 쓴 답을 지우개로 지우며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결국 'SBS'라고 썼다. '열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일까요'라는 문제에 적은 답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안사요'. 55초짜리 동영상은 지난 17일 올라온 뒤 4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이모티콘 등 통신 언어를 시험 답안지에 사용하기도 한다는 데, 만약 저런 '엉뚱한' 정답을 써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선생님의 반응도 궁금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체

예술의 거리 매니아를 위한 조그만 음악 전문점을 들렀을 때 그 거리의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커다란 덩크 트럭은 포장용 모래를 덜것거리며 내리고 먼지 가득한데 보도블럭을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는 소음이 요란하다. 로마 시대부터 있어 왔던 유럽의 화장압 포장 도로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이다. 공사는 추서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끝났다. "들음만한 음악 한 장쯤 골라주세요" 약간 무뎠지만 착한 주인의 선곡, 먼지와 요란한 소음 속에서의 음악 감상이었다. 힐러리 한(Hilary hahn)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의 손에 의해서 벽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주인공의 눈과 관객의 눈에는 눈물이 일렁이고 차마 떨지 못한 눈물의 슬픔에 이어서 달려가 파리의 밤거리를 헤매는 '바이올린 플레이어'. 차라리 예술 골목이라 말해야 할것만 같은 길이 100미터를 넘지 않는 예술의 거리에서 듣는 '샤콘느'. 어린 시절부터 광주에서 자란 필자는 '남농'의 제 '오지호' '강연균' 등의 존경하는 이름들을 못이 박히게 듣고 보며 자랐다. 미처 다 알려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 프랑스 영화의 기억 처럼 고독하고 슬픈 예술가들의 모습들이 어슬렁 눈에 띄곤 했던 예술의 거리. 그곳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공사중일까? 좀 더 좋은 골목을 만들기 위한? 20세기를 고스란히 집권처럼 지고있는 우리들의 시대 현재는 21세기다. <음악 칼럼니스트>

바흐 샤콘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파르티타 2번 소나타 4번을 담은 CD. "12번 들려주세요" 17분 52초의 연주다. 다른 연주와 비교했을 때 연주 시간은 긴 편이다. 비교적 느리게 연주한 음악이라는 얘기가. 창밖의 덩크트럭과 먼지와 소음을 배경으로 한 샤콘느 음반 표지에는 샤코나 (ciaccona) 라고 적혀 있다. 약 300년 동안 있어 온 같은 뜻의 단어다. 약간 더운 날 창밖의 소음과 먼지를 배경으로 듣는 샤콘느, 영화속의 한 장면에 앉아 있는 느낌이다. 바흐 파르티타 2번 중에서 5번곡 샤콘느를 듣는 그런 장면,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은 사라졌다. 음악 만 남겨진채로. 1950년대 이래로 '야사 하 이페츠' '네이션 밀스타인' '장경화' '기든 크래머' 등 천재들은 모두 연주한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 파르티타' 기타(Guitar)나 피아노로 연주한 곡도 다 헤아리지 못했다. '부조니' 편곡의 연주 역시 좁은 지면에 담기 어

렵다. 이제 그들의 목록에 'P.S 힐러리 한'이라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할까. 그리고 보니 오래된 프랑스 영화 중에 '바이올린 플레이어'라는 영화도 있었다. 길게 이어지는 라이프처럼 생긴 파리의 지하철 통로에서 그 영화의 주인공 바이올린 연주자는 평소 눈여겨 봐 왔던 장소에서 슬프고 우아한 '샤콘느'를 연주한다. 그러나 원래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인도 사람의 눈에 필과 동시에 바이올린은 빼앗기고 그의 바이올린은 가난한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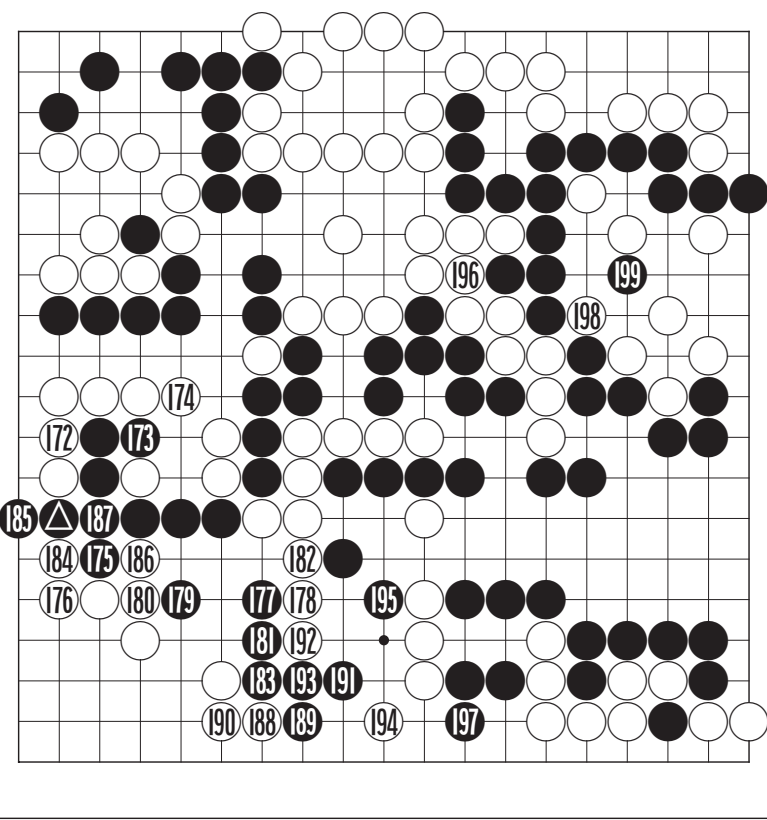
뉴스퀴즈

82.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행사가 오는 10월 8일부터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993년 제 74회 대회 개최 후 14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불거리·먹거리·즐거거리가 가득한 종합문화축제로 치러집니다. 무슨 대회일까요? ① 전국체육대회 ② 소년체육대회 ③ 도민체육대회 ④ 장애인체육대회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0일(음 8월 10일 丁日)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3·4위전.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A) vs 김명수 5단 (빛고을교사회). 흑 ▲로 기본종계 막아서는 백이 답답한 형국이다. 앞서 백이 긴 승부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깊어 들어가 버렸다. 이제는 외길이며 내친 걸음이다. 유흥주 5단은 한가닥 희망을 품고 174까지 참고 기다린다. 그러나 접근전은 김명수 5단의 전문 분야. 초읽기의 와중에서도 흑 175의 급소를 찾아내 위기를 교묘히 타개하며 결정타를 날린다. 이 수가 사활의 급소이며 유일한 타개의 묘수로 최후의 승착이 되었다. 백 176이 어쩔 수 없을 때 흑 177과 179가 멋진 연결타로 이것으로 흑을 조이는 수단이 사라졌다. 백은 수상전에 희망을 걸었지만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훗 191까지 흑의 수수가 부지기수로 늘어 도저히 수상이 되지 않는다. 흑 175와 177, 179의 3수가 백의 명맥을 끊은 절묘한 연타였던 것이다. 유흥주 5단은 백 194로 끝까지 항거해 보았으나 이번에는 또 흑 195가 좋은 수로 위쪽 백 8점이 잡히고 만다. 흑 199를 보자 유흥주 5단이 아쉬움을 접고 선전하게 돌을 던진다. 김명수 5단이 트레이드 마크인 무서운 완력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개인전 3위를 차지하는 순간이다. 흑 199 수 끝 흑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한승, 명인전 결승진출. 조한승 9단이 지난 18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통령재대국에서 목진석 9단에게 234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조한승 9단은 결승에 선착한 이세돌 9단과 오는 10월2일 결승 5번기 1국을 시작한다. 조 9단은 이세돌이 2000년 32연승을 할 때, 2007년 29연승을 할 때 나타나 연승행진에 제동을 건 바 있는 천적. 객관적인 상대전적에서는 14승 11패로 이세돌이 리드하고 있다. 이 대회의 제한시간은 라드 2시간 6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96> 오하오우 니혼고 <996> 니하오 쫑구워 <186> 한자 이야기 <613>

English section: 'I lost my passport' dialogue and grammar notes. Includes a list of words and phrases.

Japanese section: '前(まえ)で待(まち)ち合(あ)わせたっでした。' dialogue and grammar notes. Includes a list of words and phrases.

Chinese section: '您先请' dialogue and grammar notes. Includes a list of words and phrases.

Chinese section: '대기만성(대기만성)' article and grammar notes. Includes a list of words and phras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